



'혁명'에 비견되는 멕시코 법관 '직접투표' 독주

법관 모두를 국민들이 직접투표로 뽑는다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당 주도의 선거 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상당해 과연 여당 뜻대로 선거를 통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인데 멕시코 정국은 연일 이 문제로 들쭉거리고 있다.

내년인 2025년 6월1일이 투표일로 정해진 가운데 판사들에 대한 직접투표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판결의 최종점에 있는 대법관들이 사퇴를 표방하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멕시코 대법관의 임기는 15년이다. 임용시기가 각각 다른데 Norma Pina 대법원장의 경우 2023년1월2일 취임했기 때문에 이전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2030년 까지 법정 임기지만 역시 내년 8월에 물러나야 한다.

어제 날짜로 법관의 핵심인 11명의 대법관 중 야당 성향의 8명이 사퇴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여당 성향으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25년 임시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당선되지 않아 직위를 마친 대법원장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지난 9월 15일 연맹 관보에 개혁안이 게재



된 것도 대법관의 조기 사퇴 결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보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출마를 하거나 출마 후 낙선하였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일제히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대법관들의 결심은 결국 일선 법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법관들이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현재, 멕시코는 판사를 직접 선출하고 임기도 줄인다는 사법개혁 법안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판사들에 대한 선거일이 내년 6월1일로 당선된 법관의 공식 취임은 8월25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10개월 간은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절대 신분상 불이익이

없다고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미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상당하다.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임기가 줄어드는 만큼 퇴직금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상원의 모레나당 의회 조정관인 Adm Augusto López와 사퇴 시기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PRI, PAN, MOVEMENT CIUDADANO 등 주요 야당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법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여당이 돌파해야 할 난관이다.

현재, 멕시코 연방 사법부(PJF)는 1,690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년 6월2일에 첫 선거를 시작으로 향후 2년 동안 모두 직접 투표로 뽑게 된다.

법관수도 현재 대법관(Ministro) 11명에서 9명으로, 고등법원 판

사(Magistrado) 942명에서 94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방법원 판사에 해당하는 Jueces는 현 정원인 737명 그대로 유지된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판사 직접 선출은 2025년 6월 1일로 첫 번째 선거에서는 대법원(SCJN) 대법관 9명과 선거관리재판의 치안판사, 사법규율법원 판사 등 전체 법관 중에서 과반수가 선출될 예정이다. 나머지 판사를 뽑게 되는 두 번째 선거는 2027년에 치러지게 되는데 최종 선거로 선출될 판사는 1,686명에 이른다.

지원자 등록은 오는 11월 24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최종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원은 목록을 통합하여 내년 2월12일까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INE)에 보내는 것으로 접수는 완료된다.

선거를 통해 판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자는 해당 직책과 관련된 과목에서 최소 8점의 학점을 받은 법학 학위 소지자
2. 5년의 법률 실무 경력
3. 자기 소개서 작성 및 최소 5개의 추천서 제출
4. 현직 판사, 대법관 및 치안판사는 추가 요건이나 평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5.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공공 또는 민간 자금을 받거나 광고를 할 수가 없으며,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관련기사 2면)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9.97	살 때	1,432
팔 때	21.08	팔 때	1,383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마약조직의 '자릿세' 협박, 이제 시티 중심지까지 위협

멕시코시티에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던 마약조직의 활동 영역이 이제는 변화가까지 확대되면서 시티에서 어느 곳도 안전한 지대가 없어지게 됐다. 주로 클럽이나 바, 가라오케 등 술집이 이들의 타깃이었다면 최근들어서는 좀 규모가 큰 식당이나 레스토랑까지 검은 손길을 뻗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Derecho de piso, 즉 '바닥권리'라고 불리는 일명 '자릿세'다.

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매달 2만~4만페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스스로 멕시코 시티 최대 마약조직인 '유니온 페비토' 조직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로 3~4명씩 그룹을 지어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범법 활동은 고스란히 보안카메라(cctv)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국의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들어서만 30여건의 강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피해 사실을 신고는 하지만 신분을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다. 특히, 당국이나 경찰이 강단들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불신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체포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보복이 두려기 때문이다.

결국, 업주는 직원과 고객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기업이 총격을 받거나 소실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사실, 멕시코시티에서 마약조직의 갈취는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만연하여 왔다.

유흥가의 마약 공급을 독점하며 확장되어온 영업망이 지금은 식당가로 까지 번진 것이다.

EL UNIVERSAL 신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수도에서 발생한 강탈은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시티 정부 수장이었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이 범죄가 역사 지구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강탈에 대한 불만이 없

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티의 최대 도심 지역인 Cuauhtemoc구와 Benito Juárez 구, Azcapotzalco, Iztapalapa, Gustavo A. Madero 및 Ilvaro Obregón구에서도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주요 상업지역에 범죄조직의 '자릿세' 요구가 과거보다 더 적극적이지만 당국의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멀지 않아 교민식당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소나로사에도 점

차 이들의 활동 영역에 포함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자릿세'로 마약조직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소문대로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도 건네지면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당국의 범죄조직 소탕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새로 출범한 연방정부의 보안장관이 이전 시티정부에서 보안장관을 한 경험이 있고 비교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그의 역할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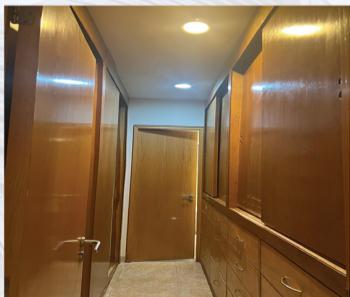
1면에 이어..

그러나, 가장 핵심은 누가 과연 판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인데, 현재 전체 법관 중 절반 이상이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모집 정원을 채울수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사전 후보로 등록하게 되는 10,152명 중에서 자격 등 적합도 심사를 통과한 최종 인물이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하원과 상원의원 추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격조건도 까다로워 이같은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

다. 개혁법안은 추천인 자격과 추천인 수가 명시되어 있어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선거에 나설 인물이 과연 등록 이전에 가능한가인데 현재의 분위기라면 이 숫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직 판사들의 선거 불출마 선언과 야당의 비협조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법관 직접 선출은 상당한 기간 동안 내홍을 앞으면서 사법부의 행정마비 등 큰 혼란으로 갖 출범한 현 정권의 위기 관리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파트 임대 (90m2, 27평형)

위치: Reforma 222

月\$26,000(관리비 별도)

- 소나로사 Reforma 222, 거주하기에 최상의 위치
- 침실 2개, 서재 1개, 욕실 1개, 거실, 주방
- 세탁기, 건조기 구비
- 도시속의 정원 같은아파트, 훌륭한 전망
- 수영장, 테니스장, 파티룸, 체육관, 사우나 및 스팀룸
- 마사지, 조깅 트랙, 놀이방 및 비즈니스 센터
- 주차장 1개, 경비 24시간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 드립니다.

이메일: Carlos Rodríguez

핸드폰: 55-1948-2853

멕시코 의회, 노천 광산 채굴 금지 법안 발의

멕시코 의회가 노천광산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근 지역사회의 물 부족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멕시코에서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주 의회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은 9월 의회가 개원되면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포괄적인 헌법 개혁 패키지의 일부다. 의회는 4월 말에 휴회했지만 위원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해

당 법안을 심의해 왔다.

멕시코에서 헌법 개정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 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집권 모레나 당과 연합세력은 지난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는데 상원과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인지 여부가 이달 말 연방선거재판소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현재, 한 두석 차이로 과반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승인한 채굴 계약을 반대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해왔으며, 2018년 취임 이후 새로운 광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노천 채굴을 금지하는 것만으로 물 부족 지역의 농업용수 등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판 여론도 상당한데 멕시코 광업 회의소(Camimex)는 "해당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멕시코 GDP의 1% 위축(약 2,500억 페소 손실)을 초래하고 약 200,0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개발과 경제

안정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면서 "국가의 천연자원을 개발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느려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멕시코는 전체 광산의 60%가 노천 광산으로 알려져 있다.

광산 엔지니어, 금속공학자, 지질학자 협회(AIMMGM)도 "이번 금지 조치가 멕시코의 광산 주권을 위협에 빠뜨리고 국가 산업을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 것" 이라면서 "법이 광산에 의존하는 국가의 지역에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거법원, 할리스코 주지사로 MC당 후보 최종 승리 확인

패배한 여당후보의 끈질긴 승부 뒤집기에 관심을 끌었던 Jalisco 주지사 선거에 대해 어제 멕시코 선거법원이 Pablo Lemus를 최종 승자로 판결했다. 처음 결과 그대로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총선에서 할리스코주는 MC(시민운동당)의 후보로 나섰던 Pablo Lemus 승리를 했었다. 표 차이는 2.53%로 56,660표 차이로 박빙의 승부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 후보가 선거 과정

에서 불법을 문제삼아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선거 법원(TEPJF)은 모레나당과 소속 후보인 클라우디아 델가디오(Claudia Delgadillo)의 선거 무효화 주장에 "선거 무효는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강력해야 하지만 일방적 주장이고 증거가 없다"면서 할리스코 주지사로 파블로 레무스(Pablo Lemus)의 최종 승리를 만장일치로 판결했

다. Morena당과 후보자는 선거일에 MC(Movimiento Ciudadano)당에 Jalisco 정부 관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이전 할리스코 주지사도 MC당 소속이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후보가 야당후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멕시코시티 파우메목 구청장 선거에서였다.

승리한 야당후보가 여당후보의

가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시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시티법원은 "선거무효" 를 선언하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결국, 상급 법원이 "선거무효 사유가 없다" 면서 최종 승리를 선언하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당시 여당후보는 현 집권당의 실세인 몬레알 하원의원의 딸로 권력을 방해삼아 선거 결과를 뒤집기 하려 했다는 비판이 상당 했었다.



국제운전면허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멕시코인들의 기대수명은 몇 세일까?

획기적 의료발전, 풍부한 먹거리로 현대사회의 기대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과거 같으면 자연사로 받아들일 만큼 당연시 되었던 불치병 암도 이제는 웬만큼 예방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수명은 누구라도 노력에 따라 100세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국가간의 격차는 아직도 뚜렷한데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의 기대수명은 거의 배에 가까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야 건강한 생활도 가능하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진국 대열에 있는 멕시코는 어떨까?

멕시코 통계청(INEGI) 공식 자료에는 여성의 기대수명은 80.9세, 남성의 기대수명은 74.8세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누에보 레온 주민들이 77.7세로 다른 주의 멕시코인보다 더 오래 살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부 국경 지역의 주는 2020년 전국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감소한 해지만 오히려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는 해당지역이 다른주보다 의료체계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부유함은 장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멕시코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는 국립 사회건강보험(IMSS)과 공무원 건강보험(ISSSTE) 같은 민간 병원과 공공

진료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식 직업을 가진 사람만 IMSS 또는 ISSSTE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사각 지대에 놓인 비 정규직이 의외로 많아 실질적 사회보장 의료혜택을 보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국가 차원에서 멕시코 국민의 약 30%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공공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보장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에보 레온에 이어 멕시코에서

수명이 가장 긴 주는 다음과 같다.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77.2세)
코아우일라(77.1세)
아과스칼리엔테스 소노라와 멕시코시티(76.8세)
치와와와 바하 캘리포니아(76.6세)
케레타로(76.3세)
콜리마(76.2세)
시날로아(76.1세)
할리스코와 키타나로오(76세) 순이다.

반대로, 멕시코에서 가장 수명이 짧은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 이 지역의 공통점 가장 가난한 주라는 점이다.

치아파스(73.1세)
게레로(73.2세)
오아하카(73.4세)로 뒤를 잇고 있다.

다른 기관의 조사한 가장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멕시코의 기대 수명은 평균 76세로 여성은 78.4세, 남성은 72.1세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의 기대수명은 남성 80세, 여성은 85.6세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 영구 운전면허 "다시 발급한다"

중단됐던 영구 운전면허증이 다시 발급된 전망이다. Clara Brugada 신임 멕시코시티 시장이 이를 공식화 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부터 시티정부는 멕시코시티에서 영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클라라 브루가다(Clara Brugada) 시티 정부 수반은 이번 주 월요일에 멕시코시티 의회에 이 법안을 수립하기 위한 발의안을 보낼 것이며 일단 승인되면 당국은 11월에 이러한 유형의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에서 현재의 3년 기한의 운전면허증을 1회 신청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꿀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이번 조치로 정기적인 면허 갱신의 필요성을 없애고 절차를 용이하게 하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멕시코시티의 영구 운전면허는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이 시티 시장 재임때인 2000년~2005년 당시 도입되었지만 후임자인 Marcelo Ebrard 시장이 2007년 이를 철회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영구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1,500페소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자원은 공공 인프라 공사, 교통,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설치하는 케이블카, 대규모 도로 안전 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게

된다.

운전면허 절차는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동안 진행 된다.

기존에 영구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훼손이나 분실일 경우 곧바로 재발급이 가능해지며 이 면허를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교통규정에 관한 이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영구면허 취소 사유는 현재까지 자동차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심각한 것거나 치명적인 피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음주 운전, 교통 위반 누적, 거리 시설물 훼손, 공문서 위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멕시코시티 정부는 영구 운전 면허증 발급이 수도의 재정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발급을 중단했었다. 매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주면서 받는 세수가 많아 시정부에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영구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시정부가 운영하는 이동사무소(SEMOVI)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진이 포함된 공식 신분증
2. CURP
3. 멕시코시티 거주지 주소 증명(3개월 이내)

참고할 점은,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는 운전자는 물론, Estado Mexico 지역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멕시코로 조용히 몰려드는 아시아 국가 이민자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멕시코 땅을 밟고 있다.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아시아에서 몰려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대부분 최종 목적지는 미국을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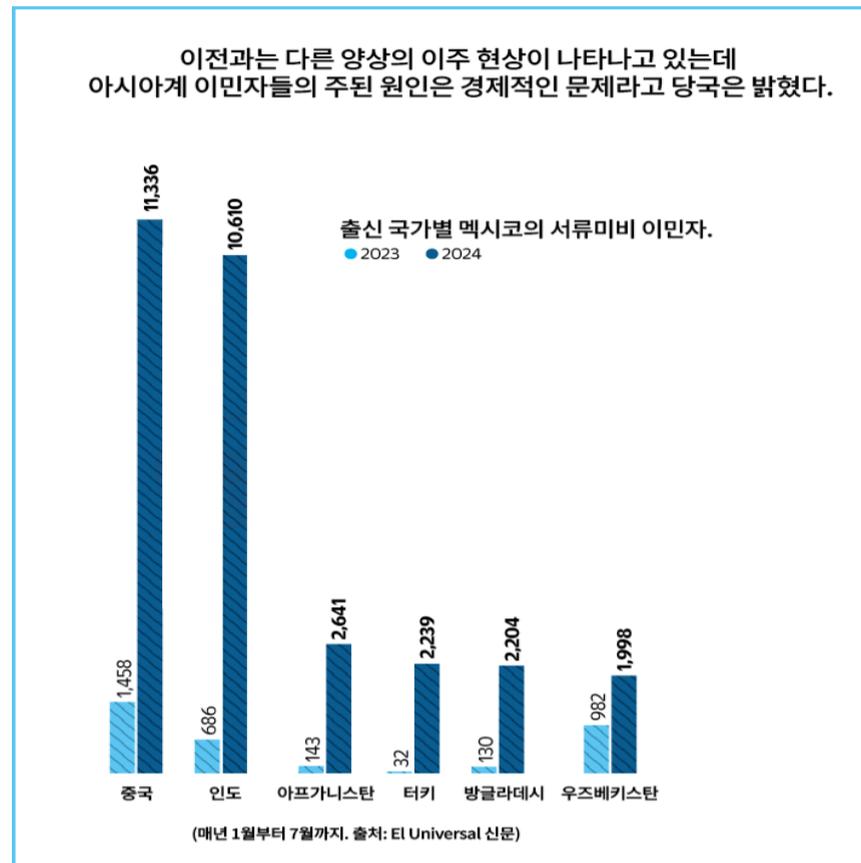
중앙 아메리카,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출신의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정착을 위해 멕시코 국토를 환승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조용히 그들의 존재감을 늘려온 다른 그룹이 있다.

멕시코 내무부 이민정책과 (Segob)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 입국한 중국인은 작년 1,458명에서 올해는 11,366명으로 2023년 대비 6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숫자면에서 단연 두드러졌다.

인도 국적의 이주자도 불법 입국이 1,651.1% 증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민도 2023년에 비해 1,746.8% 증가하여 서류미비자가 143명에서 2,641명으로 증가했다.

그 밖에 불법적으로 멕시코에 입국한 이주 집단은 방글라데시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각각 1,595.3%, 103.4% 증가했다.

멕시코 이민청인 INM (National Migration Institute)에 따르면, 아



시아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미국행을 택하고 있는데 중간 기착지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행을 희망하는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출신의 이주민들은 북쪽 이웃 국가로 건너가려는 멕시코인들에 비해 소외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미국으로 불법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멕시코인들이며, 그 다음이 베네수엘라인이고, 그 뒤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순이라고 미국 이민국이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이주민의 도착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아직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멕시코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치아파스의 중앙을 통과해 멕시코 국토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곳은 멕시코 조직범죄가 수년 동안 인신매매를 자행해 왔던 곳이다.

예를 들어 이들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은 중앙아메리카 국적자들에게 청구하는 비용보다 2~3배 더 많은 엄청난 금액을 인신매매범들은 요구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에는 지역을 통제하던 멕시코 군인들이 아시아인 불법 이주민들을 수송하던 트럭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내렸으나 도주하자 발포하여 6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한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화물트럭에는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로 모두 서류 미비자들이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이민청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국경을 넘고 있는데 조사결과 모두 일자리 제안을 받고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감독 역할이 주어진 기관이 부패하면서 미국행을 위해 멕시코로 들어오는 다른 국가 이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 취임식때 휘장 넘겨주고 4일만에 사망한 멕시코 하원의장, 향년 99세

지난 5일 사망한 하원의장은 1925년생으로 올해 99세다.

좌파 정당인 민주혁명당(PRD)을 공동으로 창립하기도 했을 정도로 멕시코 좌파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연방 하원의원을 네 차례나 역임했다. 뉴욕주재 멕시코 대사로 재임하기도 했다.

멕시코 정치 중앙무대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았던 Ifigenia



Martinez 하원의장은 지난달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원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前대통령으로부터 휘장(띠)를 넘겨받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마지막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취임식 당시에 산소 공급기를 코에 부착하고 부축을 받아 참석할 정도로 완전한 병세악화를 보여주었던 하원의장은 99세라는 고령과 무리한 일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극도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절차인 前대통령의 휘장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하원의장의 역할을 마친 지 4일만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안드레스 마누엘 前대통령의 세번째 대선 출마시 그를 지지하면서 현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올해 8월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멕시코의 소득 분배 (La Distribucion del Ingreso en Mexico)라는 유명한 저서를 남겼다.

멕시코 정치권은 여성 정치인으로 독보적 존재에 가깝던 고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추모, 참배에 나서면서 큰 여성 정치인이었던 그녀를 애도했다

멕시코인 550만명, 일자리 구하다 포기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넘쳐나는 멕시코에서 의외로 구직자들의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 우선, 낮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로 여성을 위한 국가의 일자리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국립 통계청(Inegi)이 실시한 전국직업고용조사(ENOE) 결과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55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 구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수치는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 197,000명 더 늘어났다.

이 550만 명의 멕시코인들은 '노동력' 이라고도 알려진 경제활동인구에 속하지 않고 실업자로 직접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숨겨진 실업 상태에 있다.

경제 및 비즈니스 연구 센터(CIEN)의 코디네이터인 Hector



Magaña는 "경제 침체의 영향이 크지만, 낮은 급여나 부적절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숨은 실업자 중 40%가 15~29세 청년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매력적인 취업 기회가 부족하여 낙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70만 명의 여성이 숨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숨겨진 실업 외에도 8월에는 구

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멕시코인이 190만 명 더 등록되었다. 이는 전체 노동력의 3.3%에 해당하며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ManpowerGroup과 Junior Achievement Americas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8명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이 정치적 요인과 산업의 계절적 요인, 경제 침체에 기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사회개발정책평가위원회(Coneval)도 "노동력의 기술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실업률 증가,

낮은 생산성 및 비공식 일자리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상당한 청년의 60%는 구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험 부족을 꼽았고, 47%는 근무 시간의 불일치를, 34%는 나이를 꼽았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 수요에 대한 근로자의 신속한 적응을 요구하는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29세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이 취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구인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가 '급여'라고 언급했다.

즉, 급여가 높으면 다른 조건이 일부 안 맞더라도 입사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 비해 멕시코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자투고) 가짜 정비복까지 입고.. 외국인 차량 노리는 '신종 사기수법' 주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고 있을 때 우연히 지나가던 멕시코인이 타이어를 가르키며 "바퀴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지만 재차 바퀴를 가르키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결국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바퀴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마침 지나가던 정비사가 무슨일이냐고 물으며 다가온다.

운전자는 좀 전에 지나가던 어떤 멕시코인이 바퀴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비사는 해당 바퀴를 살펴보고 바퀴축을 만져본 다음 여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이대로 운행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

다고 겁을 준다. 그러면서 바퀴축을 연결한 부분을 직접 손으로 움직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까지 시켜준다. 정비사는 가까운 곳에 자신의 정비소로 차량을 가져가서 수리하자고 유인한다.

여기까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종 차량 사기 수법'이다.

지나가면서 차량을 가르켜 바퀴가 고장났다고 하던 2~3명의 멕시코인과 우연히 마주친 듯 다가왔던 정비사 1명 모두 공범들이었던 것이다. 3~4명으로 조직된 이들 사기꾼들은 멀쩡한 차량을 고장이 났다고 하면서 유인하고 있는데 이들을 따라 나서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되



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운전자는 이들의 제의를 뿌리치고 자신이 다니던 도요타 공식 정비소에 차량을 가져가 수리를 의뢰했다. 사전에 사기꾼들이 지목했던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정비소 담당자에게 보냈는데 정비소에 도착하니 정비사가 의심이 든다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섰다" "갔다"

를 반복, 주변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차량을 들어올려 해당 부분을 손으로 움직이면서 이정도 유격은 '정상' 이라면서 아무 문제 없으니 차량을 운행하라는 것이었다.

모두 소나로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토요타 정비복까지 입고 있어서 자칫하면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들의 사기행각이 주변 도로 어디에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기사에 나온 사진은 해당 사기꾼의 실제 모습이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토요타, 멕시코 공장에 14억 달러 투자

Luis Lozano 토요타 멕시코 사장은 마르셀로 에브라드(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 후 올해 새로운 판매 기록을 예상하고 있는 Toyota 자동차가 멕시코 2개 주에 있는 공장에 미화 1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금은 바하 캘리포니아주 테카테(Tecate)와 과나후아토주 Apaseo el Grande 공장의 시설을 개조하는데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Tacoma 픽업 트럭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조하게 된다.

이와 관련, Ebrard 경제부 장관은 소셜 플랫폼 X의 게시물에서 이 소식을 확인하면서 Toyota는 "우리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멕시코에서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투자 소식을 전했다.

이번 발표는 멕시코에서 만든 차량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brard 경제부 장관도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투자자를 위한 확



실성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멕시코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토요타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멕시코에서 18개 차량 모델을 제공하며 98개 자동차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는 이번 투자로 두 공장의 생산 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술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l Financiero 경제 신문

에 따르면 Toyota는 상반기 판매량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4년에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합친 판매량이 10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2024년에 100,000대 미만의 자동차 판매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6개월 동안 58,081대의 차량(이 중 27%는 하이브리드)을 판매하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초기의 반도체 및 기타 부품과 관련된 공급 문제 해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2년 전 멕시코에 발을 들인 토요타는 최근의 발표외에도 2024년 올해 말까지 미화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나후아토 전국 67개 전기 자동차 및 전기화 부품 공급업체 중 16개, 전국 52개 원자재 공급업체 중 18개 업체의 본거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3년 초부터는 전기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3개의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8년~2024년 기간, 멕시코 경찰 111명 자살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의 낙인, 경찰조직 비인간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멕시코 경찰이 지난 6년간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zul Cobalto 프로젝트 등록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멕시코에서 111명의 경찰관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의 낙인, 경찰력의 비인간화로 인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에는 12명의 자살이 기록되었으며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24명, 2022년 12명, 2023년에는

10명, 올해 8월까지 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중에서 여성 경찰관은 18명이며 근무중 자살한 경우가 최소 47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사례가 있는 주는 치와와(18명), 베라크루스(11명), 멕시코시티 10명, 멕시코주가 8명, 푸에블라주가 7명 순이다.

가장 많이 자살한 것으로 기록된 지방자치단체는 치와와(치와와) 6명, 모렐리아(미초아칸) 5명, 시우다드 후아레스(치와와), 과달라하라(할리스코), 티후아나(바하칼리포르니아)가 각각 3명씩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살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이 진행된 지금까지 3,874명의 경찰이 사망했으며 그 중 3,236명이 피살된 경우였다.

사고는 436건, 복무 중 납치 44명, 자연사 42명. 추격 중 심장 마비로 사망한 경찰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항상 폭력을

다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법적, 사회적, 경제적 폭력의 피해자이며 멕시코에서는 경찰관의 복무중 사망 위험이 세계 어느 곳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힘든 직업으로 이것이 바로 자살이 매우 흔한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경찰업무 과정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부터 경계선에 있는 (총기에 의한)사고사의 트라우마 경험으로 자살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잠룡으로 평가받던 가르시아, "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올해 대선에도 출마하는 등 차기 잠룡으로 평가 받던 누에보 레온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가 내부의 비리로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주주인 회사와 관련된 스캔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한 정치인들의 격려를 받으며 성장한 올해 36세의 젊은 정치인 사무엘 가르시아(Samuel García)의 경력은 3년도 채 되지 않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했다.

2021년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누에보 레온 주지사가 된 후 대통령 후보가 되려다가 탄핵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얻은 거의 모든 것을 잃을뻔도 했었다.

대선이 끝난 오늘날 MC(Movimiento Ciudadano 시민운동당) 소속의 정치인 사무엘 가르시아는 켈의회, 몬테레이 시장실, 모레나에서 가장 증오하는 라이벌의 말을 따라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6월 총선거로 누에보 레온 의회의 새로운 구성은 PAN과 MC가 각각 10명, 모레나가 9명, PRI가 8명, PRD가 3명, PT와 녹



색당이 각각 1명의 의원을 갖게 되면서 가르시아는 연방 차원의 집권당, 더 정확히 말하면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야 할 만큼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한 때 밀원 관계를 형성하던 현여당과도 뼈적 거리고 있어 소수 정당 소속으로 여당이나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주지사직을 '임시휴가' 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시도와 지난 6월2일 선거에서 그의 아내, 영향력있는 사람이자 그의 주요 미디어 발기인인 마리아나 로드리게스(Mariana Rodríguez)의 후보 출마 실패와 함께 주의회 재구성 및 불법 부의 축적, 횡령 및 대법원의 법률 및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한 스캔들

로 사무엘 가르시아는 현재 탄핵 위기에 놓였으며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주주로 있는 회사, 누에보 레온의 사업가, 특히 그와 함께 큰 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땅과 목장을 제공한 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스캔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가 Javier Garza Bufington이 소유한 그룹 겐토르(Grupo Gentor)는 가르시아 주지사에게 산 페드로의 가장 고급 지역 중 하나인 Mesa de la Corona에 7억 페소 상당의 17.6헥타르의 토지를 제공했고, José Miguel Bejos가 소유한 건설 회사 모타-엔길 멕시코(Mota-Engil México)는 가르시아의 가족과 가까운 회사 및 기업과 연결되어 몬테레이 페트로 공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사업가인 Chema Garza Ponce의 소유주인 Constructora Garza Ponce와 관련이 있으며, 이 회사는 170억 페소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이익을 얻었다.

주 정부의 추천으로 이 회사는 El Cuchillo II 수로 건설 컨소시엄의 일부였으며 작년 말 Nuevo León Mobility 사무국으로부터 4호선 및 6호선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다.

이 계약은 70억 페소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Hercules Construcciones 및 Constructora Moyeda라는 기업 이름과의 컨소시엄으로 낙찰 받았다. Garza Ponce는 2호선 프로젝트도 담당했다.

또한, 누에보 레온에 투자가 예정되었던 테슬라의 실패한 산타 카타리나 공장 역시 실행되지 않게 되면서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

주지사는 자신이 "동료"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시했던 사업가 엘론 머스크가 아직도 투자할 것이라는데 의심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결국, 기세 등등했던 젊은 정치인 사무엘 가르시아는 서툰 정치력과 기성 정치인과 다를바 없는 부패한 일면을 보여주면서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는데 그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임대료 인상 주범 에어비엔비, 앞으로 1년 중 6개월만 운용가능

대표적인 주택 공유플랫폼인 에어비엔비(Airbnb)에 대해 멕시코 의회가 1년 중 6개월만 허용하기로 법개정을 하면서 주택 임대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료 상승의 주범으로 알려진 공유숙박업에 대해 당국이 재제를 가하면서 가파르게 치솟던 멕시코시티의 주택 임대료는 한 풀 꺾이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어비엔비가 장기 임대 가능한 주택 수를 줄여 임대 가격

을 인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일부 에어비엔비 소유자들은 개혁 법안에 대해 심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멕시코시티에서 시행되는 규제는 여전히 느슨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에어비엔비가 엄격히 금지된 도시(바르셀로나, 애너하임, 뉴올리언스)와 숙소 임대가 아예 허용되지 않는 도시(베를린, 샌프란시스코, 런던, 뉴욕, 산타모니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에서는 제한 기간이



120일이고 런던에서는 90일인데 반해 법개정이 되더라도 멕시코시티는 180일로 주요 국가 도시에 비해 기간이 더 길다.

이처럼 숙박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임대시장은 물론, 주택 가

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6개월로 기간을 제한하면 전문적으로 단기 임대를 제공하는 주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 시티에는 주택공유 플랫폼에 가입된 임대 주택이 약 25,000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안은 PAN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규제 강화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좀 더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펴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취임 5일만에 피살된 칠판싱고 시장, "갱단은 왜 죽였나?"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폭력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Chilpancingo 시장직을 두고 경쟁했던 정당이나 경쟁자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시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려다가 실패하자 시장을 살해 했다는 것이 여러 정황상 가장 유력하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에 만들어진 연방 정부의 지원금 'Ramo 33'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취약한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축복과 저주'라고 일컫는다.

연방 정부가 재무 및 공공신용부를 통해 매년 시장과 시의회에 제공하여 주민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구매할지, 무엇을 건설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돈가방'이다.

초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지역 갱단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변질되어 조직범죄가 자신들이 후원하는 시장 후보를 당선시켜 이 자금을 유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통상,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전달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 즉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 공간부터 배수 시설, 공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작업을 이 돈으로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원이 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사용처를 임의대로 선정하면서 예산의 남용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축구장을 짓는데 1000만 페소가 소요되었다고 예산을 책정하지만 실제로는 100만페소만 지출하고 나머지 돈은 모처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방이고 특히 외진곳의 공사가 많아 공급이 잘 쓰였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업무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비리가 드러나면 갱단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수 년 동안 'Ramo 33'은

부패와 과도한 가격 책정의 원인이 된 사례가 빈번했지만 지역 정부를 감사한 적은 없을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왔다.

이번에 시장이 피살된 칠판싱고(Chilpancingo)는 게레로(Guerrero)주의 주도(州都)인데 '라모 33'을 통해 3억 5700만 페소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55%가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마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

게레로주 주변 지방자치단체인 Iguala, Acapulco, Arcelia, Copala 등도 마찬가지다.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Ramo 33'을 조직범죄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한다면 해당 지역 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코 살아서 임기를 마칠수가 없다" 고 주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익명의 軍 관계자는 실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게레로주 지역 갱단인 'Los Ardillos'와 'Los Tlacos'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연합 회사를 설립하여 공원이나 스포츠 센터 또는 배수 시설 건설 등 공공 사업의 시행권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취임한 지 5일 만에 살해된 칠판싱고 시장 알레한드로 아르코스(Alejandro Arcos)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살해 위협에 시달려 왔었다.

이유는, 지역 갱단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나타냈기 때문이다.

먼저, 시장이 살해되기 며칠 전부터 전조 현상이 일어났는데 시장 살해 이틀전에는 차기 칠판싱고 시장 보안 책임자로 임명된 필울리세스 에르난데스 대위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현역 군인은 35세의 웬디로 확인된 여성과 함께 회색 기아 차량을 타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무장 괴한들이 차량 운전석 쪽에 무려 15발의 총을 쏘 살해했다. 조수석 여성도 사망했다.

이어, 시장 피살 하루 전날에는 시의회 사무총장인 프란시스코 타피아(Francisco Tapia)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즉, 시장의 측근들이 며칠 간격을 두고 살해되면서 시장에 대해 압박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간 히잡 착용 둘러싼 분쟁

이슬람 신앙을 믿는 여성들의 머리와 목을 가리는 히잡(hijab)이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멕시코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국가 대법원(SCJN)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4월, Chihuahua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에바마리아 벨렘 로자노 아리아스(Evamaría Belem Lozano Arias)가 요청한 여권 발급에서



히잡을 쓴채 찍은 사진을 제출했으나 두 번 모두 거부당했다.

이에 Lozano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2일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만장일치로 "이유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히잡을 벗어 달라는 요구가 불균형적이며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Lozano의 종교 자유,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항소를 제기했다. 여권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의 사진은 흰색 배경에 컬러로 정면에서 촬영해야 하며, 머리는 가리지 않고 얼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는 옷이나 물체는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법원 판결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Coran)에서는 여성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집에서 히잡을 쓰지만 유일하게 남편과 함께 있을때만 벗을 수 있다.

폭스콘, 멕시코에 엔비디아 칩 메가 플랜트 건설 예정

세계 최대 위탁 전자 제조업체인 폭스콘(Foxconn)이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 '세계 최대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미국의 재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멕시코를 택한 것이다.

대만의 폭스콘이 멕시코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서버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과달라하라 시에 짓게 되는 이 공장은 블랙웰 GB200 인공 지능 서버를 조립할 것이라고 타이페이에서 열린 연례 기술 쇼케이스 행사에서 폭스콘의 영 리우(Young Liu) 사장이 밝혔다.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공장의 길이만 공개되었는데 450미터



에 이르러 초대형 공장으로 짐작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서방 정부의 재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민감한 기술 제품과 핵심 공급품의 제조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수년 동안 모색해 왔었다.

특히,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국 내 제조업을 재

건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세계 최대 칩 제조업체인 대만 반도체 제조(TSMC)와 경쟁사인 인텔과 삼성과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시켰다.

폭스콘은 현재, 중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폰 공장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거대한 산업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부터 산업용 로봇,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설계,

부품 제조 및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폭스콘 그룹의 글로벌 제조 부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서버 및 관련 부품 생산을 주목적으로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정부의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를 구성하기 때문에 투자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조업체의 요구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폭스콘과 다른 대형 계약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서버 생산을 중국 밖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 최대갑부 카를로스 슬림, 정부 복지지출 '완전히 비합리적'

억만장자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이 멕시코 정부의 복지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말기에 쓴소리를 하고 나선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수요일, 누에보 레온의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19차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담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에 1조 3천억 페소가 넘는 노인 연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급보다는 빈곤의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데 은퇴자

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시급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을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65세 이상의 모든 멕시코인은 재산이나 다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금액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편적 노인 연금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순자산이 약 890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최고 부자인 84세의 카를로스 슬림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 6,000페소(미화 311달러)의 보편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멕시코 노년층, 특히 대규모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정부나 민간 고용주로부터

다른 퇴직 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Slime은 또한, "멕시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생활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인당 GDP가 12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멕시코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14,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멕시코는 반사이익을 얻을수가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에 따라 멕시코 경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릴 것"이라면서 (미국의 재제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멕시코 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 기업가의 비판에 대해 현 정부,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보편적 연금 금액은 적지만 빈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동안 빈곤층의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멕시코 정부는 노인 연금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는 곧 현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기반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많아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하겠다고 당선자는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이익 여부를 떠나 지지 계층을 묶어두려는 정부 여당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오히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종일 서서 일하는 근로자 위한 일명 '의자법' 하원 통과

멕시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붓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으로 주 40시간 근로(현재는 주6일,48시간)시간과 '의자법'이 있다.

현재, 주 6일제 4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일 40시간으로 전환은 여당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법 규정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먼저 '의자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법 적용에 회사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종일 서서 근무하면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의자법(Ley Silla)'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권이 큰 관심을 기울여 온 법안 가운데 하나다.

아직, 상원에서 법안심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통과 여야 모두 입장차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법안도 대통령 공표를 거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월3일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멕시코의 '의자법(Ley Silla)은 무엇인가?

신발가게 직원, 웨이터, 계산원, 경비원 등 서비스 및 상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서서 일해야 하는 직종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하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 중 휴식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476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자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의자법'은 셀프 서비스 상점,

시장, 상업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근무 시간 동안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순환 장애, 정맥류 및 휴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져 왔다는게 과학 연구에서 널리 입증되었음에도 서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잠시라도 앉아서 쉬는 회사에 나쁜 이미지가 생긴다는 고용주는 이를 꺼려왔다. 의자법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가 없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자법은 언제 시작되나?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상원의 검토와 승인이 남았다.

상원도 승인하면 다음 단계는 해당 법률이 연방 관보(DOF)에 공포 및 게재되는데 비로소 새로운 규정으로 공식화 된다. 즉,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효일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충족되면 기업은 적절한 휴식과 직원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 사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기한은 공표이후 기업은 180일 이내에 내부 규정을 새로운 법조항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노동사회복지부(STPS)는 3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변경, 공고해야 한다.

멕시코시티-Puebla 고속도로 강도 급증, 7개월간 5천건 발생

최근들어 가장 폭력적인 도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곳이 멕시코시티에서 뻘에블라(Puebla)간 고속도로 구간이다. 올해 들어 7개월간 5천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관리 기관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올해 첫 7개월 동안 5천 건 이상의 고속도로 강도가 발생했으며 이는 멕시코 전국 고속도로 강도사건의 20%가 집중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멕시코-푸에블라 고속도로는 특히, San Martin Texmelucan, Puebla, Chalco, Amozoc, Ixtapaluca 및 Tlahuapan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 고속도로 주변 지역이며 외진 곳

이다. 가장 흔한 수법은 도로위에 바위나 기타 통행에 방해를 주는 물건을 늘어놓고 이를 모르고 지나친 차량이 타이어 펑크가 나 운전자가 차를 세우면 강도들이 덮치는 식이다.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이용 뒤를 따라붙어 운전자를 총으로 위협하여 차를 멈추게 한 후 트럭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있다.

강도들은 운전자와 일행들의 금품을 강탈하고 연락처를 알아낸 후 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를 찾아가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신고를 못하게 한다. 대형트럭에 적재된 화물을 강탈한 경우 이를 암시장이나 재

래시장에 반 값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어제밤에 빼앗긴 물건이 오늘이면 시장에 팔리고 있을 정도로 강도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최근에는 가짜 순찰차까지 동원해서 지나는 차량을 세우고 강도행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이 횡행하기도 한다. 멕시코의 도로 및 고속도로 네트워크 사용자 수 만명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다.

멕시코 운송협회에 따르면, 고속도로 강도의 86%가 금품을 강탈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현 정부의 6년 임기동안 부정부패 및 관리소홀로 인해 멕시코-푸에블라 고속도로에서는 해마다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

다. 최근에는 야간이나 새벽 등 특정 시간대에 이 고속도로는 통행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도가 급증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와 중부도시 뻘에블라간 물류 핵심도로인 이 고속도로는 강도, 강탈 사건외에도 낙후된 도로주변 지역 주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해 몸살을 앓기도 한다.

위낙 부패한 경찰과 무책임한 주 정부 당국의 관리 미흡으로 멕시코시티-뻘에블라 고속도로는 대낮을 제외하고는 야간 통행이 어려운 정도로 위험한 곳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민 위기의 세계 진원지가 된 멕시코

8년 전, 중부 유럽에서는 인도주의적 난민 신청이 100만 건에 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미 지역(멕시코 국경)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북미, 특히 멕시코는 인도주의적 이주 위기의 세계적 진원지로서 중부 유럽을 대체했다.

불과 8년 전만 해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는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망명 요청이 집중됐는데 지금은 멕시코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 유엔난민기구(UNHCR)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미국과 멕시코의 난민 신청 건수는 61만5천건으로 유럽 3개국(독일, 스페인)의 2배 이상인데 4대륙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멕시코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례해 미국 난민 신청



건수도 540,600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 세계 난민 신청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0년부터 미국 정부가 부과한 제한 사항 중 하나는 CBP On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망명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멕시코 영토의 휴대폰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

이다. 이는 이민자들을 멕시코 땅에 묶어 두려는 조치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를 토대로 2023년 12월에만 미국 국경 당국은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일일 이민자 수가 8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매일 1,450명만이 CBP One을 통해 망명 신청 예약을 받은 셈이다.

UNHCR(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1년 멕시코는 난민 신청 국가에서 망명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세 번째 국가로 부상했다.

이같은 멕시코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주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베네수엘라, 아이티인들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17,000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티후아나에 도착하여 미국에 망명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016년 구대륙(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도 인도주의적 이주 위기의 세계적인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무렵 부터다.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시리아이며 두번째로는 베네수엘라가 꼽히고 있는데 유엔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777만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인이 출신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멕시코와 인접한 국가들이 대부분 정치적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멕시코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과 미국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선호되는 도피처로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향한 이주민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함부로 못 올린다" 시의회, 임대료 인상률 인플레이션과 연동

최근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 멕시코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멕시코시티 의회는 멕시코시티(CDMX)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연간 10%까지 인상할 수 있었던 현재의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 통계청 INEGI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5.57%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연간 현재의 최대 10% 인상에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현행 최대 10% 인상에서 해당연도 인플레이션 비율만큼만 최대 인상폭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인플레이션이 5%라면 임대료 인상도 최대 5%가 상한선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업용 건물은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이 법안은 휴가를 떠난 3명의 의원을 제외한, 거의 완벽

한 57대 0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시 의원들은 7월 29일 마르티 바트레스((Martín Batres)) 임시 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상정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시티의 임대료가 최저임금의 8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불과 3주 반 만에 의회는 특별 회기를 소집하고 임대료 개혁 법안을 위원회를 거쳐 최종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별다른 논쟁 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심의 과정에는 공개 포럼이나 부동산업자 또는 민간 주택 기관과의 협의가 포함되지 않은,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주택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높은] 임대료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를 더 공정하게 만드

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표결에 참여한 Polimnia Romana Sierra) PRD 하원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에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어났는데 클라우드야 세인바움 당선자도 취임 이후 주택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한 상태다. 멕시코 시티 거주자의 약 24%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명 중에 한 명 꼴이다.

특히, 외부 거주자들의 유입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변두리 지역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유 숙박서비스인 에어비엔비나 부킹닷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임

시 숙박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이 역시 지난 4월에 가결이 되면서 단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임대료 규제법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모든 임대 계약에 대한 디지털 등록부를 구축해야 한다. 즉, 개인 및 법인 등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신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 계약 등록부 오용과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면서 임대주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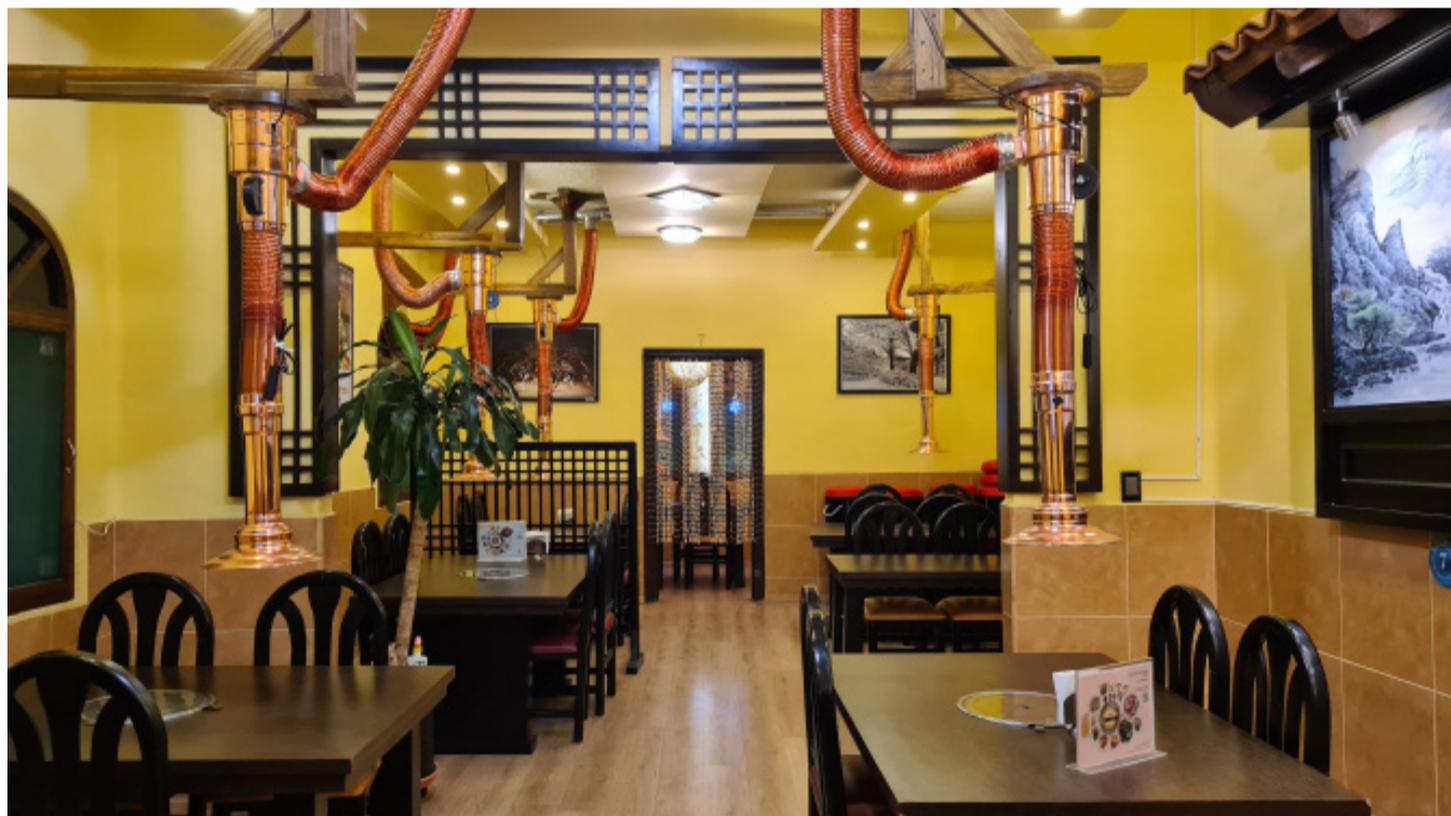
이번 개혁 법안에는 저소득층, 특히 빈곤층, 노동자 계층, 미혼모, 18~3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 주택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시 주택법안도 새롭게 개정되면서 건설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12월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